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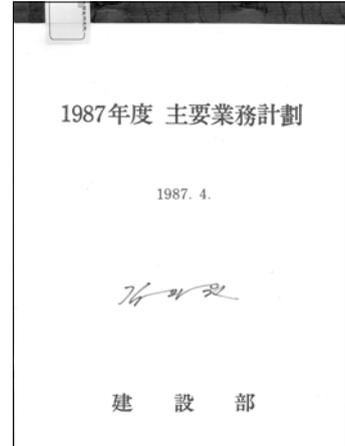
66 業務現況(1981, 1982) 업무현황

1981년, 1982년 / 건설부 / 01.10-03 건53업

主要業務計劃(1981, 1983, 1985, 1986, 1987)

주요업무계획

1981~1987년 / 건설부 / 01.10-03 건53주



「**業**務現況(업무현황) (1982)」은 1983년의 국회예산심의자료로서 10월 말 현재 건설부

업무현황으로 작성된 것이다. 내용은 총 80면으로 ‘일반현황’, ‘1982 주요사업 추진실적’, ‘1983 계획’, ‘법률안 개요’, ‘1982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’ 및 ‘1983 예산안 개요’로 구성되어 있다. 이 보고서의 특징은 국회에 제출된 「수도권정비계획법(안)」 제정 이유와 중요 골자가 기록되어 있다. 첫째 권역의 지정은 ① 이전촉진권역, ② 제한정비권역, ③ 개발유도권역, ④ 자연보전권역, ⑤ 개발유보권역으로 나누기로 했다. 이밖에 법(안)은 인구집중 유발시설 이전지에 대한 지원과 인구영향 평가와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.

「主要業務計劃(주요업무계획) (1983~1987)」은 당시 대통령 연두순시 때 보고한 업무계획이다. 이 계획서에는 ‘198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’과 ‘1983년도 주요업무계획’ 및 특기사항이 수록되어 있다. 첫머리에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고, 이어 11가지 특기사항이 있는데, 그 중 공무원들의 자가운전에 대한 실시계획이 있다. 1982년부터 공무원 자가운전을 실시했는데 1983년에는 7명이 목표라고 기록하고 있다.

또한 이때 컴퓨터 보유 현황을 보면 건설부 30대, 산하 국영기업체 및 국토연구원과 해외건설협회를 합하여 72대 등 도합 102대였는데, 가동률이 얼마였는지는 기록이 없다.

『主要業務計劃(주요업무계획) (1985)』 역시 첫머리에 대통령 지시사항 실천 결과가 기록되어 있다. 총 105건 중 85건이 완료되고, 추진 중인 것이 20건으로 기록되어 있다. 1985년도 계획서의 특징은 1970년대 두 차례의 유류파동을 겪은 영향인지 에너지 절약 계획이 보인다.

1986년도 업무계획 역시 일반현황에 이어 대통령지시 실천사항을 기록하고 있다. 지시사항 123건 중 조치완료된 것이 107건이고, 진행 중인 것이 16건으로 되어 있다. 이 계획서에도 제5공화국의 중요치적, 1980년~1985년까지의 6년 간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다.

『主要業務計劃(주요업무계획) (1987)』에는 1980년~1986년까지 지난 6년 간에 바뀐 국토상이 기록되어 있다.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가 1987년까지였으니까 재임시의 치적을 정리하는 데 온갖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.